


# 양대원 Yang Daewon (b.1966)

 @yang\_dae\_won

**학 력** 1996 세종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서양화전공 졸업  
1993 세종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졸업

**개 인 전** 2024 LOVE, 마주안갤러리 (공주)  
한글-인생, Artapolis Art gallery (앙카라, 튀르키예)  
2023 한글-인생, 주튀르키예 한국문화원 (앙카라, 튀르키예)  
사랑LOVE, 운중화랑 (판교)  
2022 人生-Persona, ARTREON gallery (서울)  
2021 나는 왕이로소이다, 운중화랑 (판교)  
2020 황금눈물, 어반아트 (서울)  
"人(In)-Forest", 복합문화공간 Café SPACE (평택)  
2019 密語-왕의 속삭임, 사비나미술관 (서울)  
密語-의심, 어반아트, 화랑미술제 (COEX, 서울)  
2016 密語, 동산방갤러리 (서울)  
2015 검은별, 갤러리담 (서울)  
2014 의심-오래된 눈물, 갤러리희 (경남 양산)  
2013 오래된 눈물, 사비나미술관 (서울)  
2012 오래된 눈물, Usine Utopik (노르망디, 프랑스)  
2010 의심 II, 동산방 갤러리 (서울)  
그 외 총 31회 개인전  
**외 다수의 기획 / 초대 / 단체전 참가**

**경 력** 2024-현재 성신여자대학교 미술대학 대학원 동양화과 출강  
2019-현재 덕성여자대학교 예술대학 동양화과 출강  
2014-2020 성균관대학교 예술대학 동양화과 출강  
2018 -2019 성신여자대학교 미술대학 대학원 동양화과 강사  
2015 세종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겸임교수  
2014-2015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한국화과 겸임교수  
2014 부산 신라대학교 서양화과 강사 역임  
2011 성균관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강사 역임  
그 외 다수

**해외 프로그램** 2013 "Sandarbh Artist Workshop", 인도  
2012 "Tâches-Tâches" 국제 심포지움, 노르망디, 프랑스  
"With Artist - Usine Utopik" 레지던시 프로그램,  
노르망디, 프랑스  
2002 Taipei Artist Village" 레지던시 프로그램, 타이페이, 대만

**수 상** 2005 제24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 비구상부문  
제27회 중앙미술대전 선정작가  
2004 제4회 송은미술대상전(송은문화재단) - 미술상  
1996 제3회 공산미술제(동아그룹) - 우수상  
그 외 다수

**작 품 소 장**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경기도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경기문화재단, 송은문화재단,  
사비나미술관, 금호미술관, 아라리오미술관, 동산방화랑, ColeccionSolo, Usineutopik

## [Artist's Note]

---

### 아무 말 없는 가면 / 페르소나 이면의 근원적 감정에 집중하다

나는 나로 비롯될 수도, 타인으로부터 기인할 수도 있는 무수히 많은 인간의 감정들을 이야기한다. 내가 그려내는 가면들은 '동글인' 이라고 불린다. 생김새가 동글 하다 하여 붙인 이름이다. 동글인은 곧 나 자신의 아바타이면서 분신이기도 하다. 그리고 내가 예술로서 주관적 경험을 객관적 경험으로 확대 재생산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동글인은 우리 타자들의 동료이기도 하다. 그렇게 나는 자기-타자를 빌려, 타자들의 동료를 빌려 삶의 아픔을, 사랑을, 욕망을, 슬픔을, 그리고 죽음을 이야기 한다.

동글인은 우리 삶 속에서 존재를 대신할 뿐만 아니라, 때로 어항으로, 계단으로, 커튼으로, 식물로, 눈물방울과 같은 사물로, 문자와 같은 개념으로 변신한다. 이처럼 사람, 사물, 개념의 경계를 넘나드는 동글인은 작가의 회화적 모나드, 최소 단위 원소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동글인이 연기하는 부분은 이데올로기를, 불신과 의심을, 그리고 삶과 죽음이며, 텅 빈 자기와 함께 끊임없이 다른 삶-가면을 연기하는 나의 작품세계를 구축하는 주된 배우이다.

실제로 작품 속 동글인은 아슬하게 줄을 탄다거나 추락하는 것과 같은 유추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 자체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가면이다. 그러므로 가면은 어쩌면 텅 빈 자기를 보존하기 위한, 그 속으로 아니면 그 사이로 사람이, 사물이, 개념이, 서사와 이데올로기가 머물다 지나가도록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장치로 착상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텅 빈 주체, 지나가는 주체, 숨어있는 주체 등 우리 전인간의 내면의 주체들, 감정들을 내가 그리는 이 가면이 증언해 주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나의 모든 그림들은 결국 나 자신의 삶에서 파생한 문제로부터 출발할 것이다. 욕망 속 감정들을 여실히 드러내면서 조형적으로 완성도 있는 구현을 지속적으로 놓치지 않으며, 한국 사회와 시대적 문제들을 종횡으로 다루며 주체적 관점을 끊임 없이 펼치고자 한다.